

since 1986

SUNBO FAMILY

VISION 2015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4년 2월 15일

vol. 121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2014 PSA 선보아카데미의 '선보 글로벌챌린지' 과정 실시



우리 회사는 2014년 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2박 3일간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사원·대리 직급 55명을 대상으로 '선보 글로벌챌린지' 1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선보 글로벌챌린지'는 '2014 PSA 선보아카데미'가 설립된 이후 진행된 첫 교육프로그램으로, 선보의 사원·대리 직급의 사원들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식전환과 일체감 조성을 통한 선보의 조직 활성화와 생산적인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과업의 실행자로서 주도적 역량 실천의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자세와 의식을 함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선보를 위한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전 또한 명확히 하여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2014 PSA 선보아카데미'를 통해 진행된 첫 교육인 만큼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열정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강의중심이 아닌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글로벌챌린지' 과정이 시작되기에 앞서 1월20일(월) 본사 대교육장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전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기위한 내용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날 PSA의 총괄책임자인 최홍렬 전무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SUNBO WAY테스트와 PMI(PSA MBTI) 성격·적성 검사를 진행하였다. SUNBO WAY테스트는 우리 회사의 이념, 사훈, 역사 등을 질문하여 직원들의 애사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모든 테스트를 마친 후 PSA스태프를 소개하고 PSA의 취지와 목표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23일(목)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챌린지' 과정이 시작되어 참가자들은 글로벌 선보인으로서의 자세와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을 소화하였다. 일체감을 조성하여 생산적인 팀워크를 육성한다는 교육의 취지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은 총 6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경주로 이동하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자재지원부 김동섭 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Module 1]소통하는 선보인'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Module 1은 조직 내의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원활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성격유형을 분석하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토의하고 진단하는 시간이었다. 석식 후에는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직원들과 캐미팅(Can meeting)을 하며 우리회사의 미래지향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영진들과 직원들의 간담회는 서로의 벽을 허무는 허심탄회한 자리라 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선보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국내 조선업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장과 변화를 거듭해왔다. 무한경쟁의 격랑을 슬기롭게 헤쳐 가며 선보의 변화를 일구어 냈듯, 직원들이 'PSA 선보아카데미'에 참가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선보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둘째 날 프로그램은 본격적으로 직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주제들로 진행되었다. [Module 2]화합의 선보인'을 주제로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진정한 관계증진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2인1조로 마사지를 해주고, 요가 동작을 익히는 등 친밀감을 높였다. 또한, [Module 3]영광의 선보인' 1부에서는 '연극기법을 활용한 관계성 향상과 역사사지 관점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각 팀별로 신문지를 이용해 자신을 표현하기, 영화포스터 만들기, 속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역극작품을 구성하여 연극 공연하기 등 연극을 활용해 조직 내 관계증진을 위한 실습시간을 가졌다. [Module 3]영광의 선보인' 2부 CF콘테스트에서는 각 팀별로 '선보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CF를 제작해봄으로써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책임감을 함양함과 동시에 소통의 중요성을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의 일정은 캠프파이어로 마무리 되었는데, 참가자 전원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을 다졌다.

셋째 날은 CF제작을 마무리하며 우수한 팀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우승한 팀의 동영상상을 비롯해 각 팀별로 제작한 CF는 유튜브(PSA.sunbo)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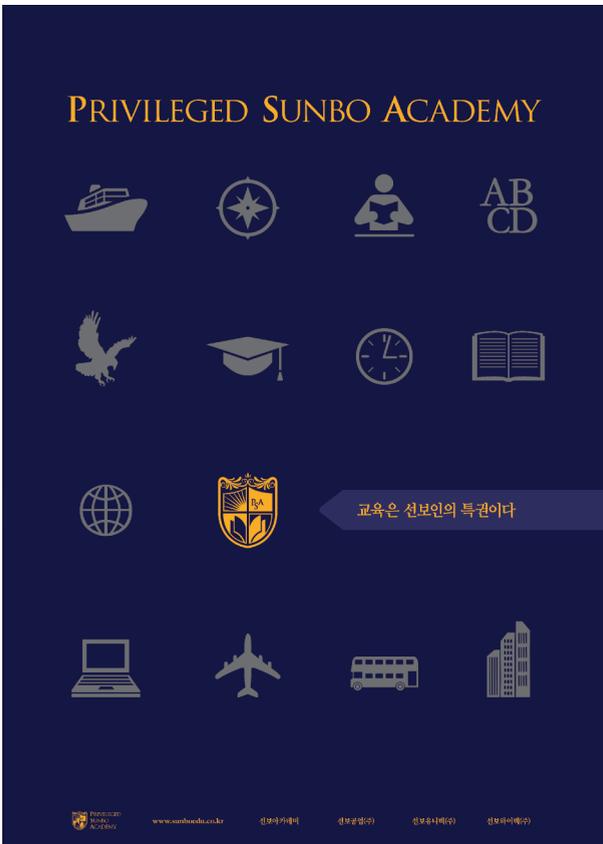
이로써 '선보 글로벌챌린지' 과정의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최홍렬 전무이사가 글로벌 선보 제1기 전원에게 각각 수료장을 나누어주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수료식을 마쳤다.

이어 참가자들에게 '선보 글로벌챌린지' 과정에 대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선보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과 차별화되어 이런 교육이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사무실에서 한마디도 나뉘보지 않은 동료들과도 친해져서 기쁘다. 진정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등의 소감을 전하며 '선보 글로벌 챌린지' 과정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PSA의 책임자 최홍렬 전무이사는 "이번 교육은 '2014 PSA 선보아카데미'의 첫 교육인 만큼 최희승 차장을 포함한 PSA스태프들의 준비기간이 길었고, 신경을 많이 쓴 교육이었다. 그렇기에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기쁘다. 앞으로도 선보와 선보인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참신하고 도움이 되는 교육들을 많이 만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의 성공이 선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 PSA(Privileged Sunbo Academy) 선보아카데미 설립 '교육은 선보인의 특권이다'



2014 PSA 선보아카데미 프로그램일정

교육구분	대상	차수	상반기	하반기
PSA 선보아카데미 입학 프로그램 (2박3일)	선입사원	20~30명	5/29(목) ~ 31(토)	10/30(목) ~ 11/1(토)
선보 글로벌 캠프 (2박3일)	사원 ~ 대리	100명	1차	1/23(목) ~ 25(토)
			2차	2/13(목) ~ 15(토)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2박3일)	과장 ~ 부장	60명	1차	3/13(목) ~ 15(토)
			2차	3/20(목) ~ 22(토)
수혜 선보인 프로그램 (1박2일)	장급자 전원	50명		7/18(금) ~ 19(토)
Happy Harmony 팀빌딩 프로그램 (1박2일)	전 사원	200명	1차	6/20(금) ~ 21(토)
			2차	6/27(금) ~ 28(토)
최고경영자 과정 (1박2일)	임원	19명	2/21(금) ~ 22(토)	9/19(금) ~ 20(토)
독서동선교육 (2개월)	사원 ~ 부장	200명	4/1(목) ~ 5/31(수)	11/1(토) ~ 12/31(수)
사이버 교육	전 사원	200명	1강좌	2강좌

우리 회사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보인, 글로벌 선보'를 완성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글로벌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PSA 선보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PSA 선보아카데미'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조선 경기를 극복하고 해양사업의 글로벌스탠더드에 발맞추어 선보인에게 글로벌한 마음가짐을 심어줌으로써 개개인의 역량과 자신감, 그리고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공동체 정신을 더욱 다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능력을 기르는 초석을 놓기 위해 기획된 교육시스템이다.

PSA는 최흥렬 전무이사를 필두로 최희승 차장을 비롯한 스태프들이 선보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물이다. 최고의 교수법과 상호작용법을 결합시킨 PSA시스템은 학습자 개별 모니터링을 완벽히 통합하여 학습자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과정을 제공한다.

지난 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2박3일간 진행된 'PSA 선보아카데미'의 첫 교육인 '선보 글로벌 챌린지'의 1차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교육과정도 선보인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강수 고문, 경영지원 서재욱 상무이사, 구평1공장 김청욱 상무이사, 기술연구소 장호길 이사, 자재지원부 김동섭 팀장, 생산부 이경식 팀장 등 앞으로 진행될 교육프로그램에 선보의 내부강사를 초빙할 계획이며, 향후 내부강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PSA 선보아카데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희승 차장은 "최흥렬 전무님을 필두로 저희 PSA팀은 선보인의 소중한 시간을 단 일분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보와 선보인을 위해 더욱 완성도 높은 교육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자 PSA 선보아카데미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가치인 '글로벌 선보, 글로벌 선보인'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도 다함께 만들어 나아갔으면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향후 계획도 밝혔다.

"선보아카데미는 열려있습니다. 선보아카데미는 800여 명의 선보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선보아카데미는 우리의 꿈이 시작되는 공간입니다"라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며, 현재 구축된 PSA시스템뿐만 아니라 향후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학습 진행 상황의 모든 과정이 학습자에게 공유·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PSA 선보아카데미 커리큘럼에 의한 각 세션을 마칠 때마다 어떤 기술과 지식을 마스터 했는지, 학업 도중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행과정과 상황을 파악하여 선보인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된 'PSA 선보아카데미'는 꾸준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충하여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선보와 선보인들의 향후 비전과 목표달성의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 유성모 부사장 취임 '생각은 CEO처럼, 행동은 과장처럼 하자'



유성모 부사장

지난 2월 10일, 우리 회사 신입 부사장으로 조선업계의 베테랑인 유성모 부사장이 취임하였다. 유성모 부사장은 "우리 회사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조선 설계와 기술연

구소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의 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화 완성도에 기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점차 다각화되는 사업영역과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의 니즈(needs)를 볼 수 있는 한 발 앞선 시각으로 임하겠습니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성모 부사장은 DSME와 DSEC에서 30여 년간 경력을 쌓으면서 우리 회사를 알게 되었다. 평소 조선관련 사업 기자재나 블록, 모듈사업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일해보고 싶은 회사라고 생각하던 차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각오가 새롭다고 했다.

유성모 부사장은 우리 회사에서 받은 첫 인상이 '매우 진취적'이라며 긍정적 기업문화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선보공업의 기업문화 저변에는 인재육성, 교육, 직원복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내포되어 있다"며, 특히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회사의 교육 투자와 복지 등 인간 중심의 기업문화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세계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유성모 부사장은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궁극적 목표는 글로벌 일류기업이 되는 것이지만, 인간 중심의 기업문화를 내실 있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인간 중심의 기업문화가 개인과 기업에 녹아 들면 글로벌 파고에도 끄떡없는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시장의 선점 영역은 경

쟁우위의 기술력이 제공하지요. 기술력 없이는 경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과 역량을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합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상생의 정신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은 CEO처럼(주인의식), 행동은 과장(실천)처럼 한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성모 부사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까이하는 명품모듈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멀리는 우리 회사가 세계일류기업으로 가는 발걸음마다 선보 식구들과 고락을 함께 하겠다며 선보인으로서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보안교육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에서 실시하는 협력사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실사를 진행하였다. 최근 보안과 해킹에 대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표준 보안 업무 메뉴얼을 전달하여 보안기술지원을 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보안체계는 평균 43점인데 비해 우리 회사는 이번 보안평가에서 63점으로 대기업의 보안체계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안교육과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회사 역시 높은 보안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성문 상무이사, 3기 글로벌 경제인 과정 수료

우리 회사 공성문 상무이사는 지난 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3기 '글로벌 경제인 과정'을 성실히 이행한 데 대한 수료증과 수료패를 받았다.

지역 최고의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글로벌 경제인 과정'은 2013년 3월 5일부터 11월 26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국내 최정상 석학과 리더를 강사로 초빙해 고품격, 명품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수료한 공성문 상무이사는 "이번 과정은 소통과 미래 예측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해야 하며 모르는 것은 도움을 얻고 또 도와주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인정하고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회사가 되어야 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동참으로 미래를 향한 약속을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일을 즐기며 철저한 준비를 하는 프로의 모습을 갖춘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회사는 비전과 가치관의 공유, 기업가 정신과 도전정신, 열린 소통을 통해 사람중심 경영으로 창조적이고 열린 조직 문화와 가치창조를 더욱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누구나 일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진정한 경쟁력은 '오늘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리더는 고객의 성공에 일조하며 두려워 말고 위험을 감수하며 불가피한 실수로부터 배우고 모든 사람을 존경으로 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보에는 뚜렷한 목표와 정신을 가진 훌륭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최금식 대표이사 이하 훌륭한 임원진들을 믿고 따르면서 소통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선보인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이번 교육과정에서 얻는 교훈을 힘 있게 전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인 과정'은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경영인 대상 교육으로 많은 타 지역 상공회의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신년 안전 기원제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8일 금정산에서 한 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년 안전 기원제'를 가졌다.

해양설계부를 포함한 설계부 임직원 40여명이 참가한 '신년 안전 기원제'는 오전 9시에 금정산 동문에서 집합하여 산행을 한 후 북문에 도착하여 본 행사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제를 지내며 특별히 최상식 부사장이 직접 만들어 전달한 기원문을 설계3팀의 최순한 차장이 낭독하였고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회사와 구성원들 모두에게 사고 없는 안전한 한 해로 기업과 가족 그리고 구성원 각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년 안전 기원제'에 임하고 있음을 함께한 모든 임직원들의 눈빛과 진지함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신년 안전기원제'에 참가한 설계5팀의 김정식 대리는 "기원제를 예정한 당일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 많이 걱정했습



니다. 그런데 비대신 눈이 많이 내려 하얀 눈이 덮혀 있는 금정산을 걸으며 함께 한 동료들과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면서 즐겁게 산행을 마쳐서 기원제를 더 좋은 마음으로 담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추억으로 남아 기원제가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가족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이니 만큼 행사를 지낼때마다 새롭게 의미를

다지고 한번더 생각할수있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밝혔다.

이번 '신년 안전 기원제'를 통해 선배 가족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이 우리 회사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사히 제를 지내고 참가한 임직원들은 팀장과 팀원간의 족구대결등으로 단합의 시간을 가지며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 다대공장 선민규 (02.28) 김동관 (02.09)
- 이영우 (02.28) 허 수 (02.20)
- 김주명 (02.18) 유성진 (02.09)
- 노재태 (02.01) 안종록 (02.18)
- 이철현 (02.01) 김수환 (02.02)
- 김정실 (02.26) 전형주 (02.20)
- 황지석 (01.26) 유시욱 (01.30)
- 다대2공장 한충민 (02.02) 지홍대 (02.05)
- 최복식 (02.02) 권병덕 (02.25)
- 최광욱 (02.21) 임종화 (02.08)
- 장기봉 (02.01) 김명운 (01.23)

구평공장

- 구평1공장 최영대 (02.19) 진석윤 (01.27)
- 박정희 (01.24)
- 구평2공장 오성호 (01.10) 류시현 (02.02)
- 박현수 (02.14) 김경화 (02.21)
- 정한성 (02.27) 김영호 (02.19)
- 박관호 (01.18)



입사 기념일

다대공장

- 다대공장 이지영 (02.01) 선민규 (02.20)
- 허 수 (02.20) 유성진 (02.07)
- 권영식 (02.07) 박재용 (02.14)
- 이도희 (02.08) 채구원 (02.27)
- 정남교 (02.27) 이상훈 (02.01)
- 강현욱 (02.01) 차성오 (02.01)
- 손동욱 (02.18)

구평공장

- 구평1공장 공진일 (02.28) 하정호 (02.20)
- 구평2공장 김평욱 (02.03) 박관호 (02.15)

영도공장

- 영도공장 김지훈 (02.02)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구평2공장 | 손종필 팀장

Q. 선배가족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입사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Q. 2월의 칭찬 릴레이 주자가 되셨는데 어

「 늘 성실하게 따라주는 우리 팀원 모두가 칭찬주자입니다. 」

떠신지요?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참 쑥스럽기도 하네요.

Q. 어떤 때 칭찬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동료들과 오래 동안 함께 일하다 보니 늘 서로가 칭찬과 격려를 하지요. 팀을 관리하다보면 쓴 소리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늘 성실하고 묵묵하게 잘 따라주는 우리 팀원들을 보면 진정한 칭찬주자라고 느껴집니다.

Q. 힘들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하지

만 결과가 잘 나오고 진행이 잘 될때는 보람을 느끼지만 원활하게 일이 안될 때 몸도 마음도 힘들때가 있습니다.

Q. 동료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묵묵하게 따라줘서 고맙고 늘 건강하게 일합시다.

Q. 다음 칭찬 주자를 추천해주세요.

문평욱 조장을 추천합니다. 가장 힘든 뒷마무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다른 그림 찾기 A와 B를 비교해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